

성악 중등부/초등부 1·2·5·6학년 김선희 조선대 겸임교수

좀 더 자신있게 노래...정확한 발음 신경써야

많은 학생들이 맑고 청아한 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다. 음악적 인 끼가 많은 학생도 있는 한편 수줍음이 많은 참가자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발음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 발음을 할 때 '어'로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가사 전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학년이라면 곡을 선정할 때 반주 부분에 멜로디가 나오는 것으로 한다면 피아노 음정을 듣고 더 자신감 있게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 맞는 곡이라 생각하여 조옮김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음역대를 헤아려보면 더 좋은 곡으로 표현이 된다. 변성기에 따르는 신체의 변화 또한 고려해 곡을 선정해야 하며, 이태리어 디션을 정확하게 한다면 곡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광주일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현악 최지호 원광대 강사

음정·테크닉 아쉬움...초등부, 곡 다루는 수준 높아

우선 풍류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인상자들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한다. 모든 참가자들이 수준 높으면서도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들을 연주했다.



전체적으로 곡을 다루는 수준이 높았고 특히 초등부 참가자들은 열심히 준비해 완성도 있는 연주를 펼쳤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음정, 테크닉을 비롯한 작은 실수들을 언급하고 싶다.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집중력 그리고 연습방법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할 수 있다. "곡을 연습할 때는 연주하듯이 또 연주할 때는 연습하듯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대로 연습한다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완성도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제68회 호남예술제의 명성에 걸맞은 수준 높은 학생들의 모습을 감명 깊게 보았다. 앞으로 발전된 모습과 무대 경험까지 갖춰 훌륭한 음악가들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피아노 고등부/초등부 5·6학년 신수정 경성대 교수

테크닉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기량 보여줘

올해 피아노 경연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정곡 레퍼토리로 인해 학생들 본인이 선호하는 곡을 연주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다. 연주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특히 대부분이 테크닉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기량을 보여줘 흐뭇했다.



물론 풍류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다보면 더 크게, 더 빠르게 연주하려는 양상으로 과열되기 쉽다. 그러다 보면 기량이 흔들리고 실수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음악은 로봇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악보를 통해 작곡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연구하고, 정성과 마음을 담아 소리를 만드는 '피아노라는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성숙하고 풍요로운 음악 생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악 윤종호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전통부터 창작까지 특화된 레퍼토리 긍정적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8회를 맞이했다. 광주전남 청소년 국악인재의 등용문으로 그동안 대회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로 출진한 사람들이 벌써 노년이 됐으니 가히 그 역사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단체로 참가한 경연팀이 많았던 것 같다. 연습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알게 될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판소리나 산조음악을 벗어나 창작곡을 연습해 나온 학생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고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특화된 레퍼토리를 내보낸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학생들이 여러 음악을 접해 시대에 호응하는 예술관을 정립했다면 한다. 수상 목록도 좋지만 대회를 축제처럼 즐기고 발전의 계기가 됐길 바란다.

발레 이영애 전 광주시립발레단 단장

중등부 기본기 잘 갖춰져 감정표현·테크닉 탁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무용 콩쿠르 준비로 설레던 꿈나무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연장으로 모여든다.



호남예술제는 오랜 세월동안 이 지역 예술 새싹들을 발굴해 내는 고등부 역할을 했으며 어느덧 68회를 맞이했다. 말 그대로 감회가 깊다. 이번 콩쿠르 초등부는 그나마 부모님들의 관심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 학생 이다소 적어 아쉬웠다. 그 중 초등부 5학년(5, 6)과 중등부 학생 중에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감정 표현과 테크닉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어 희망적이었다. 단 초등부 저학년(1, 2)은 신체적으로 아직 미숙한 단계이기에 클래식 작품 선정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발레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생기도록 작품 선택에 있어 선생님들의 배려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무용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광주일보사와 호남예술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악 고등부/초등부 3·4학년 홍승연 광주교대 교수

좋은 호흡·발성으로 어려운 곡 잘 소화

예년처럼 올해 대회에서도 초등부 3, 4학년 대부분의 성악 참가자들은 수준 높은 기량을 보였다. 학령에 비해 다소 어려운 곡들임에도 좋은 발성, 정확한 발음으로 곡을 잘 소화해 냈다.



다만 일부 참가자는 자신의 소리나 음역에 어울리지 않는 곡들을 선정해 공명이 되지 않은 소리로 표현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고등부 성악의 일부 참가자는 정확한 소리의 위치, 바른 호흡 등으로 좋은 음질을 유지했으며 곡 해석도 탁월했다. 반면 불안정한 성대의 진동과 호흡 지지의 불균형으로 공명과 균일한 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참가자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까웠다.

외국 가곡을 노래할 때 발음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력과 청중과의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피아노 중등부/초등부 1·2학년 신수경 전남대 교수

기초 탄탄해야 기교도 향상...꾸준한 연습 필요

예년에 비해 참가자 수는 늘었음에도 '제대로' 연주하는 학생은 크게 줄어 안타깝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과 다른 점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켜야 할 규칙에는 음표의 길이, 강약, 악상, 아티클레이션, 페달, 쉼표, 음의 해결, 프레이징 등 여러 항목이 있다.



한편 같은 곡을 비슷한 스타일로 부정확하게 치는 학생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보면 지도 교사가 혹은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생들은 스케일을 고르게 치지 못하고 몽개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손가락 관절을 세워 바른 손모양으로 손가락 강화, 독립훈련을 하고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연습을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초를 잘 잡아줘야 단단한 소리를 낼 수 있고 기교도 향상되어 좋은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주/합주 김연주 전 초대대 교수

풍부한 레퍼토리, 전체적인 연주실력 향상

금년도 호남예술제 중주곡 팀의 변화된 모습은 풍부한 레퍼토리 수준 높은 연주력, 전체적인 연주실력의 향상이었다. 같은 악기군끼리의 화음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플루트의 연주는 화려하고 부드럽고 클라리넷 앙상블은 우아하고 경쾌했다.



중주곡 팀 중에서도 현악 합주팀은 화려하고 씩씩한 소리를 내었으며, 압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관악, 현악, 타악, 국악 그룹으로 이루어진 중주팀은 소리의 볼륨감과 앙상블이 좋았다. 또한 거의 모든 중주팀이 암보로 연주했는데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기량을 뽐내기 위해 노력했다.

기악 중주는 다수의 연주자가 불협화음을 줄이면서 고된 음악적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연주에 주의를 기울이고 동료들의 연주와 음악적인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과 배려, 소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주자와 지도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지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보내고 싶다.

한국무용 차은희 고구려대 교수

동작 하나하나 정성 묻어나...기본 벗어나지 않길

마치 심사위원에게 자신들의 피나는 연습을 때의 눈을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하라는 듯,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길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려는 듯, 춤 동작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묻어 있었다.



다만 때의 눈을 가진 심사위원으로서 내내 마음속에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

한국 창작 무용 부문의 의상과 작품들인데, '요즘 창작 무용 추세가 이렇나?'라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기본적인 한국무용의 춤사위 구성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던 작품들을 보며 아쉬움도 있었다. 이는 몇 해 전 다른 심사평에도 언급했던 부분이고,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한국무용 심사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니 참고해 준비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대회를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선생님께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씀 전한다.

미술 김효삼 서양화가

고등부, 정통 수채화 느낌 살린 붓 터치 수작

광주에서 꿈나무를 위한 예술잔치가 이어져 오는 것에 선배 화가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면을 빌려 입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4000여 점 작품이 모두 훌륭해 피곤함도 잊은 채 심사를 마쳤다. 지역의 많은 인재들을 발견할 수 있어 기분 좋은 하루였다.

과감하고도 순수한 시각을 보여준 유치부·초등부는 회화가 갖는 자유로움과 감각적인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가장 치열했던 중등부는 숲속에 빛이 드리우며 만들어지는 그림자들과 길을 배경 삼아 한 마리 사슴이 낭만적인 산책을 하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 또 블루톤으로 주변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은 창의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고등부는 정통 수채화의 느낌을 살리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붓 터치가 수작이었다.

관악 이현주 군산대 교수

소리·리듬·음정 등 기본기 충실해야 완성도 높아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예술제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예비예수인들의 연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했다. 올해는 특히 어린 나이에도 기량을 연마해 '당당한 연주'를 들려준 참가자들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어려운 작품을 택한 나머지, 다소 아쉬운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건강한 소리, 안정적인 리듬과 올바른 음정 등의 기본기를 공부해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본인의 연주 실력과 공부과정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연습 때보다 만족하지 못한 연주를 했다 생각하거나 예상치 않았던 실수가 생겼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시대 또는 전공 악기 이외의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단순히 악보를 잘 읽어내는 연주가 아닌, 관중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멋진 음악가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이성은 전남과대학 교수

곡 해석 따라 다르게 표현...본인 연주 들어보길

68회를 맞은 이번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3, 4학년에서는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곡으로 경연을 펼쳤다. 지정곡인 모차르트,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와 쇼팽의 왈츠 곡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번 무대를 위한 어린 학생들의 진지함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 호남지역 음악교육의 열기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한 학생들이 대부분 고른 수준의 연주를 보여주었으나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귀를 열고 본인의 소리를 잘 들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바란다. 곡이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피아노라는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터치'에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일부 참가자들이 너무 강한 때림 탓에 갑자기 음악적인 흐름이 끊기는 상황은 안타까웠다. '자신의 소리를 더 듣고 피아노는 귀로 친다'라는 말을 되새기면 분명 좋은 음악가로 성장할 것이다.

중창 임선아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 부회장

밝고 경쾌한 음색 전달...울림 방해한 울동 아쉬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꿩소리같이 맑은 목소리로 열심히 준비한 중창팀의 경연을 듣고 있는 내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첫 번째 경연팀은 밝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잘 불려주었다. 다만 울동의 움직임 때문에 울림을 방해해서 조금 아쉬웠다.

두 번째 경연팀은 걸터 나오면서부터 웃는 모습으로 예쁘게 잘 불렀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음색이 무겁고 어둡게 들렸는데 앞으로 밝은 음색으로 연습하면 더 좋을 듯하다.

세 번째 경연팀은 울동이 과하지 않아 좋은 울림으로 경연을 진행했는데, 따뜻한 가사와 감정이 잘 전달된 아름다운 중창이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해 온 모습이 흐뭇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지도하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대실용무용 임지형 조선대 교수

몸 움직임과 표현력 향상, 뛰어난 역량 보여줘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멋진 기량을 뽐내는 참가자들을 보고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45년 무용 인생을 견뎌 해준 가장 큰 역할이 호남예술제였다. 무대를 누비는 무용수로서, 지도자로서 '무용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 되어준 예술제를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었다.



현대무용은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 일정과 맞물려 작년보다 참가자가 저조했다. 초, 중, 고등부는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뛰어난 역량으로 몸의 움직임과 표현력을 무대에서 보여줬다.

실용무용 분야도 K-댄스에 걸맞게 작품의 퀄리티가 향상됐으며, 참가자들의 무용수로서의 발전도 보였다. 무용도 타분야에 비해 참가자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호남예술제가 광주 문화예술인 및 지도자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지속되리라 본다. 예술제가 '전통 있는 기능자'의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작문 이미레 동화작가

다양한 '만남'이 가져온 개성있고 아름다운 '선물'

올해 작문 분야의 주제는 '만남'과 '선물'이었다.



코로나19를 반영한 내용이 많았던 작년에 비해 소재가 다양해졌고,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감각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읽는 내내 즐거웠다.

어린이 산문의 경우 생활에서 묻어나는 진진한 감동과 참신함,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과 서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

은문도 자신과 타자에 대한 태도를 시적으로 형상화해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 여럿이었다.

반면, 진부한 소재와 글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어딘가 껌만 자국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메시지가 불분명한 작품들도 있었다. 주제 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짜임새나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도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내길 바란다.